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 잠언 3장 1-12절

Tag:

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

3:1-12)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심령으로, 영으로, 진심으로, 너의 의지로, 확신을 가지고, 너의 가치관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또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성경에 의하면 부모공경이란 이처럼 그 부모가 지니고 있는 계명과 가치관을 그 자녀에게 전수하고 전수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교에서는 소실되어버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전달하려고 하고 그 자녀가 전달 받으려고하는 ‘계명’의 핵심에 ‘하나님의 명령’이 소실되었다는 점이다.

유교에서는 그 핵심을 ‘부모의 명령’으로 대체한다.

원래는 유교에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전달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진 것이다.

성경전통은 ‘마음으로’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다.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6:6-7)

그런데 ‘마음으로’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계명’을 전달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율법주의’화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나 도우심이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게 되므로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계명을 지키지는 못하게 된다.

이는 마치 시동을 걸지 않은채 자동차를 끌고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과 같다. 계명은 짐이 되고, 몸과 마음은 따로 따로 분리되고, 몸은

마음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몸은 계명을 지키는 시늉을 하고, 마음은 양심의 입을 틀어막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못들은 척하게 되고 그렇게 다들 살고 있다고 억지로 믿게 되고, 마음 따로, 삶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는게 자녀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게 진짜 자녀교육이다.

비록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하고 올바른 가르침이다.

물론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바르게는 가르쳐야 덜 악한 것이 될 것이다.

잠언은 우리에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잠언은 우리에게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가르침을 잘 새겨듣고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복을 받고 장수하며 건강하며 행통할 것이니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5절부터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친다.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가르침은 ‘여호와를 신뢰하라’이다. ‘신뢰’라는 말은 ‘신념’과는 다르다. ‘신뢰’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상대방이 없는데 신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며, 너에게도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을 보여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니 이것을 신되하라고 하지 않는다. 조상의 '위패'를 보여 주면서 이 앞에서 절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그 형상이나 상징을 보여주거나 만져보도록 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장소에 데려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잊지 말고 이곳에 일년에 몇 번씩 들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갖혀계실 수 없는 분임을 가르친다. 성경은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가?

첫 번째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과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가 자신의 삶의 역사를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의 마음으로 성령이 소개되어지는 것이다.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음으로 6절에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범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뜻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만약 지구가 태양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태양계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될까? 달의 뒷면처럼 그는 결코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지구는 없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부모는 나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각인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아주 힘겹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각인; 원숭이는 생후 6개월동안 한쪽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면 그 이후 붕대를 풀어 주어도 그 눈은 결코 보지 못한다. 생후 6개월동안 시각세포가 발달해야 하는데 붕대가 방해해서 시신경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진짜 저주란 하나님께서 나를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과 배움도 넘쳐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수는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가 평생토록 드라마틱한 삶을 살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죄악에서 떠나거나 죄악을 다스리거나, 죄의 저주를 푸는 방법을 터득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법을 모른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일 뿐이다.

그래서 8절 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 때 어떠한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

치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선언한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

성경: 로마서 7장 21-25절

Tag: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7:21-25)